

## DRACULA

뮤지컬 드라큘라

낭만적인 뮤지컬로  
환생한 흡혈귀 이야기

7.15(화)~9.5(금) 오페라극장

노블컬이라는 신조어가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다. 무대 위 뮤지컬 세상에서는 온갖 이야기들이 소재로 활용되게 마련인데, 특히 소설을 가져다 무대화하는 부류의 작품들을 일컬어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사실 뮤지컬에서 소설을 가져와 활용하는 것은 별반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을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제작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스티븐스의 소설이 원작인 <지킬 앤 하이드>나 가스통 플루의 <오페라의 유령>은 물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과 <노트르담 드 파리>,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올리버>와 <두 도시 이야기>,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작품을 다시 무대용으로 재가공한 <위키드>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도 마찬가지다. <명성황후>는 이문열의 소설 「여우 사냥」을 활용한 경우고, 황순원의 「소나기」나 김훈의 「남한산성」 또 최근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무대화한 뮤지컬 작품까지 등장했다. 아무래도 활자로 존재하던 이야기가 무대라는 공간에서 형상화되고 노래로 불리는 변화가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흥미로운 속성을 지니게 만들어주는 탓이다. 글로 읽었던 이야기가 이미지로 구체화되고, 무대라는 시공간에서 특수 효과와 더불어 재연되는 모습이 무대를 보고 즐기는 맛을 한층 높여준다는 의미다.

## 다양한 변주 선보인 드라큘라

뮤지컬로 만들어진 흡혈귀의 이야기 역시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여러 가지 설이나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역시 드라큘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아일랜드 작가 브람 스토커가 1897년 발표한 소설이 시발점이다. 신문기자 경력도 있던 그는 헝가리의 작가 겸 여

행가 아르맹 밤베리를 만나 괴기 소설에 심취하게 됐고, 여기에 유럽의 오래된 설화와 흡혈귀에 대한 전설을 더해 드라큘라라는 인물을 창조해낸다. 저널리스트의 경험을 살려 그는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와 정황, 그리고 마치 신문의 기사를 쓰듯 사실적인 묘사 기법을 활용해 정말 실재한 것과 같은,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오늘날까지 드라큘라는 마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처럼 여겨지는 별난 배경을 지니게 됐다.

드라큘라의 이야기는 그 스스로뿐 아니라 다양한 흡혈귀 이야기로 변주되며 인기를 누릴 정도로 문화계 각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흑백영화 시절 다소 조악해보이는 무성영화부터 다양한 특수 분장이 돋보였던 괴기 영화의 단골 소재로 활용되는가 하면,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나 배꼽 잡는 코미디로도 변주되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흥미로운 소재로 인기를 누려왔다. 뮤지컬로도 여러 작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코 원작의 라이선스 무대가 꾸며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도 있다. 1998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됐던 무대다. 가수 신성우, 뮤지컬 배우 김성기와 이소정 등이 메인 톨을 맡아 무대에 등장했다. 체코 뮤지컬 특유의 장중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였던 이 작품은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불려와 수차례씩 극장을 다시 찾는 회전문 관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폭넓은 연령이나 배경을 지닌 일반 대중으로까지 흥행 바람을 이어가진 못해 작품의 주인공 공처럼 비운의 뮤지컬 작품으로 남게 됐다.

반면 브로드웨이 같은 영미권 시장에선 울려 퍼진 국내에 소개되는 <드라큘라- 더 뮤지컬>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다. <지킬 앤 하이드>, <스칼렛 펄퍼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 국내에서도 여러 작품을 통해 인기를 누린 인기 뮤지컬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선셋 블러바드>, <텔 미 온 어 선데이>, <봄베이 드림스> 등 앤

드루 로이드 웨버와의 협업을 통해 토니상까지 수상했던 작가 겸 작사가 돈 블랙 그리고 <레베카>와 <선셋 블러바드> 등에 참여했던 든 크리스토퍼 헵튼이 콤비를 이뤄 완성시켰다.

초연을 올린 곳은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 호야 플레이하우스였다. 일종의 시범적 성격의 월드 프리미어 공연이었는데 익숙한 소재에 괴기물에 대한 호기심까지 더해져 연일 만원을 이룰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이 공연장 역사상 가장 높은 흥행을 이룬 콘텐츠로 등극하게 됐다. 초연의 흥행에 고무돼 2004년에는 의욕적으로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지만 욕심이 너무 앞섰던 탓인지 뉴욕 공연가에 올린 작품치고는 다소 초라한, 157회라는 성적은 거두고 막을 내리고 만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에서의 장기 흥행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했다. 브로드웨이 중연 후 드라큘라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다시 재기의 길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인기를 누렸던 스위스의 세인트 겔른 극장에서의 성공적인 흥행을 비롯해 2007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여름 축제 참가 공연, 2010년 시작된 영국 투어 공연과 세르비아 공연의 인기, 그리고 2014년 스웨덴 공연의 흥행 등이 차례로 이어지며 글로벌 흥행 가도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14년 한국어 공연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세르비아,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에 이어 이 뮤지컬을 올리는 열 번째 나라가 된다.

#### 드라큘라, 뮤지컬의 매력을 담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듯, 뮤지컬 <드라큘라> 역시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음악이다. 우리나라에서 와일드혼은 사실 앤드루 로이드 웨버도 부럽지 않은 인기 뮤지컬 작곡가로 통한다. 한때 자신의 작품이 한꺼번에 네 작품이나 동시에 막을 올리는 진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킬 앤 하이드>의 명곡인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은 무대를 넘어 맥주 광고의 배경 음악으로 쓰일 정도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평단의 평가가 대중의 호응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프랭크 와일드혼은 해외 언론이나 뮤지컬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다작多作의 상징처럼 통하지만, 음악적 완성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적 평가의 단골 대상이 되기도 한다. 비슷

비슷한 코드나 선율의 진행이 자기 복제가 심한 작곡가라는 오명도 입게 만든다. 이런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선율을 잘 찾아내고 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는 그만의 장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컨대 명작의 반열까지 오른 작품은 많지 않지만 듣기 좋고 감상하기 즐거운 극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뮤지컬 <드라큘라> 역시 비슷한 연장선에 있다.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멜로디들이 감미로운 오케스트라 반주에 포장되어 설 새 없이 들린다. 특히 작품을 보고 음악을 들어보면 극 전개 장면들과 어우러진 감칠맛 나는 뮤지컬 넘버들이 입가를 맴돌고 귀를 간지럽힌다. 드라큘라 백작과 루시의 듀엣곡인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Life After Life'나 드라큘라의 솔로곡으로 등장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의미의 '러빙 유 킵스 미 얼라이브 Loving You Keeps Me Alive' 등은 공연을 보고 감상하면 더욱 뒷맛이 진하게 남는 이 작품의 히트곡들이다. 국내 초연 무대는 한국 관객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연출가 데이비드 스완도 참여한다. 요즘 그의 작품을 보면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한국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만큼 영리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한국 시장과 한국 관객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칭찬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초연이 지금까지 그의 작품들에서 만날 수 있던 재미와 배려의 집약체가 될 수 있길 희망해본다.

뮤지컬 시장에서 여름이 비수기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올여름 대형 공연가에서 막을 올리는 규모가 큰 뮤지컬 작품들은 한두 편이 아니다. 장기 공연 중인 <위키드>를 비롯해 <캣츠>, <시카고>, <모차르트!>, <레베카>, <프리실라>, <싱인 더 레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바쁘다. <드라큘라>는 그중에서도 특히 시선이 집중되는 작품 중 하나다. 양코르 공연이 아닌 국내 초연의 신선함도 그렇거니와 로맨틱한 스토리와 볼거리, 감미로운 선율과 인기 제작진의 참여 등이 기대감을 높인다. 대한민국의 여름 뮤지컬 전쟁에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_ 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 뮤지컬평론가)  
사진\_ 오디뮤지컬컴퍼니